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 호 [루게 제 24420 호] 주제 103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 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 하여 앞 으로 !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최룡해 동지, 서흥찬 동지, 박정천 동지, 조남진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가 동행하였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는 대규모의 수산물랭동시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이곳 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에는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구동기, 랭동저장실들, 수산물운반에 리용할 지게차, 랭동차 등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이 앞으로 큰 은을 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수산물업소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과 함께 보관과 가공에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품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물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로 조직하는 수산물업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표준이 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단위도 정해주시였으며 자체와 설비보장, 어로공모집, 어선과 어구보장 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산물업소를 대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군인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올해에 그 어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물고기대중, 물고기사태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뜨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일어난 혁신의 불길이 전국의 수산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물고기잡이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름바 없지만 물고기잡이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경제부문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인민

군대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주제 103(2014)년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던 때로부터 여러 날이 흘러갔다. 하지만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이라고 정겹게 불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한 음성엔 지금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영원한 메아리가 되여 울리고있다.

새해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맞이 하지만 한해가 시작되는 뜻깊은 시각에 우리 인민들처럼 그렇듯 정겨운 부름과 더불어 평도자의 따뜻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은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지던 그때 우리 인민 모두가 자기들의 집집에 친근하신 그이를 모신것만 같아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이던 것이었다.

그렇다. 한없이 넓은 품에 인민을 안아 육친의 사랑으로 정과 열을 주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온 나라 대가정의 차려진 어머니이다.

천만군민의 절절한 호도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당보지면에 우리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 주시게끔 불면불후의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친문헌을 정중히 모셨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기쁨이 마련되고있는 것이 못내 만족하시어 환하게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소에 봄날의 햇빛처럼 따사로운 사랑이 넘쳐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년시대를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사동구역 장천 남해전문화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동무가 우리에게 들려준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접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의 잊을수 없는 사연이 추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제 53(1964)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어 농장원들에게 분배가 얼마나 차려졌는가에 대해서까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농촌문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해결의 최우선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농촌체제를 받아안



고 산 과 수 능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는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주제 102(2013)년 6월

았을 때 우리 고장을 진감시켰던 감격의 환호성이 5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 또 다시 장천땅에 우리소리마냥 터져올랐습니다.》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을 앞장서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 가도록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참으로 위대한분을 어머니로 모셨다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눈물이 솟구쳐올랐던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우리의 눈곱도 젖듯이 젖어든다.

인민생활문제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근로자들은 지금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최우선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이 말이 더욱 뜻깊게 새겨진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슬픔속에 잠겨있는 우리 인민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역세계 일떠세워주시던 바로 그때부터였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첫 자리에, 이것을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며 정력적으로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두리에 풍채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왔다. 창천거리와 풍림인민유원지, 류경원이며 인민 야외빙상장과 롤러스케이트장들의 건설... 평범한 나날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을 돌이켜보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진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여 실로 엄청난 정세가 조성된 그때 평양에서는 놀랍게도 국방공업부문의 대회가 아닌 전국공업대회가 열렸다.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고

《조선인민에게 승리가 있오라.》

... 세계가 백절불굴의 나라, 영웅조선에 대해 이런 경탄속에 주시했던 그 뜻깊은 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적들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참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당 중앙은 전국공업대회를 열도록 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 하늘이 무너진대도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이 새겨가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어진 사색의 세계의 폭과 길이는 또 무엇이 어떻게 다 뻗을 것인가.

정령 백두대간의 나무들을 뚫대로, 저 푸른 하늘을 종이를 삼아 쓰고 또 쓰고 다 전할수 없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력사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모신 민족의 대명운을 두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며 그리움의 노래를 목메어 부르면서 원수님께 일평단심 충성을 다 바쳐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김 성 철

## 총대로 꽃피우신 인민의 행복

### 군인들이 받아안은 값높은 칭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맡아 진행하고있는 총대꽃피우신 인민의 행복을 찾아오시어 관건건설을 찾아오신것은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공연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보급실 등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아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언과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 어둠속에서 보아주는 신 공연

의향을 말씀드리었다.

그런 칭을 드리는 일군 자체도 그것이 너무도 외면된것을 돌아보고나서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칭을 폐하 들어주시며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이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평양민속

###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 어 한층에 두세대로 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우리는 1970년대 건설속도를 돌파해야 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 당에서 의도하는 《마식령속도》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때 동행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지금 군인건설자들이 제일 어려운 지대를 맡고도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었다.

## 주체적건축발전의 휘황한 미래를 밝힌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뎀하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올해에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자!》는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로작에는 우리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오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무엇보다도 주체적 건축의 자랑스러운 발전역사와 진로를 꿰뚫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의 주체적 건축은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해방후 보통강계 수공사로부터 시작된 주체적 건축은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년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 나날에 우리 조국땅에는 주체성과 민족성, 인민성과 조형예술성이 결합된 건설물들이 수없이 솟아났으며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 강성국가건설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이것은 주체적 건축의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평도자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건축사상과 리념, 인민위선의 숭고한 리념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서전에서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건축사상과 현명한 평도자이신 원수님의 력사적인 건축사상을 토대로 하여 힘있게 발전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건설적 투쟁을 이끄는 힘과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백발백중이 되게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은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든든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다음으로 세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나갈수 있게 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주체적 건축의 첫 기슭에서 주춧돌이던 우리 당의 건설적 투쟁의 리념과 목적은 변함이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서 마련해주신 주체적건축발전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백발백중이 되게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은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든든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다음으로 세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나갈수 있게 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주체적 건축의 첫 기슭에서 주춧돌이던 우리 당의 건설적 투쟁의 리념과 목적은 변함이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서 마련해주신 주체적건축발전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백발백중이 되게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은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든든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

창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건설의 기본원칙이고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심이다.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설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건축과학기술을 높은 단계에 도발시키는데 대한 문제, 건설부문 과학기술인재양성에 대한 문제, 건설부문의 강령을 비롯하여 로작에 담겨진 사상 리론들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건설분야에서 대변영을 이룩하고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지난해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 리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건설기술과 공법에 의하여 건축창조사업에서 눈부신 변혁이 이룩되고있는 오늘날 주먹구구식, 오행수만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에 제시된 사상 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주체적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계승이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다음으로 우리의 힘, 우리 식으로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방도를 제시해주고있는데 있다.

건설의 변혁기는 나라의 모든 건설력량과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어나가야 할 거창한 위업이다.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한결같은 전진할수 없으며 남의 식을 모방하여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우리 식의 세계적 건설물들을 일떠세울수 없다.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다. 모든 건축물들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이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필적에올뿐 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회의 힘으로 건설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건축의 기본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해나가지면 모든 건축창조사업은 철저히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사상에서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발휘하여 대강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건설부문에서 대강건설파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지금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말라죽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에게서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이 있으며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피뎀바쳐 마련해놓은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도 대단하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뛰어난 승리와 재능,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일군들과 설계가들, 건설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다. 우리앞에 방대한 건설과업이 나서고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대로 투쟁해나갈 때 못해낸 일, 절평 못해낸 투쟁이 없을 것이다.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의 생명력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여도 영원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건축대강은 건설의 최진성기를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로 이어나감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열한 총진군에서 투쟁과 전진의 표대로 빛을 뿌린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에 제시된 사상 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율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더불어 천원히 빛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수놓아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올해를 장엄한 투쟁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영웅적인 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자 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갈 애국총정의 일념안고 모은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쳐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신군조선의 기상』, 『백두산대국의 위용이라는 구호관들과 글밭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광과 은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들과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광범기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리부영, 리철만, 김인식 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중, 조양기관, 평양시대 당, 정권, 경제기관, 대학, 공장, 기업소, 대중일꾼들, 영웅들, 근로자들이 대회를 장식하고 있었다.

대회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크나큰 긍지와 신심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에게 태양조선의 밝고 창창한 앞



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여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대국의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에 즈음한 정치행사와 더불어 투쟁의 전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저히 굳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배로 강화하였다.

자위적방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의 전면전승을 이룩하였으며 『마지막승전』창조의 불길높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제공급공급을 개진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치들을 일떠세웠으며 공업과 거리, 살림집, 공공건물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영양방직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들과 건설장들을 찾았으시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데리고전진군에 힘있게 이끌어주시

면서키야 한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강동지구관광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 기초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전인불발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며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함으로써 수도에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의로들이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민, 유원지들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평양시를 더 웅장화하게 전

면,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을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의로들이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민, 유원지들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평양시를 더 웅장화하게 전

면,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을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의로들이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민, 유원지들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평양시를 더 웅장화하게 전

면,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을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의로들이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민, 유원지들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평양시를 더 웅장화하게 전

풍이 불어온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게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지니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며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근위대가 되었다.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투철한 혁명적의식과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죽이는 온갖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를 단호히 쓸어버리겠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대학이 선두마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 강성국가를 떠메고나갈 진정한 과학기술인재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명문히 준비하겠다.

신군조선의 변혁기가 펼쳐지는 대건설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끓어번지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

청년전위들은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한 내리신다 단 단애를 달려나갈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겠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집결한 투쟁과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이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무궁도록 변혁을 강성조선의 대일을 앞당기자!』, 『수령결사옹위』, 『강성국가건설』, 『과학기술중시』 등의 구호들이 띄워진 프랑카드와 글밭들을 들고 힘찬 리주악에 맞추어 기세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여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해가려는 역센 기상이 어려웠었다.

『결사관철』, 『대건설의 포성』, 『건설의 불바람』, 『침담들과』, 『인민생활향상』, 『비약의 불바람』 등 시위참가자들이 든 손구호들에는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새해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넘칠듯한 사랑을 앞당겨 실현해가려는 역센 기상이 어려웠었다.

평양시 군중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변혁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